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강부인 (주)세방테크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훈,
윤광수 (주)해광공영 대표이사·장순경 영광기업(주)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가 주최한 '2011 건설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6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강기갑, 김희철, 홍일표, 김성태 국회의원과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단체 및 유관단체 기관장, 건설업계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창규 롯데건설(주)

대표이사와 김경준 삼성물산(주) 전무가 금탑산업훈장을, 김광수 (주)광남토건 대표이사·황규철 경림건설(주)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강부인 (주)세방테크 대표이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의원]가 동탑 산업훈장을, 노석순 원영건업(주)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최영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대표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윤광수 (주)해광공영 대표이사[대한설



▲ 강부인 (주)세방테크 대표이사가 김황식 국무총리로 부터 동탑산업훈장 수훈

비건설협회 이사, 장순경 영광기업(주) 대표이사[대한설비건설협회 이사], 이종만 신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흥태 (주)영화 키스톤건축사사무소 전무, 이상은 (주)광일 건설 대표이사, 최성업 (주)영진공사 상무이사, 천병욱 삼부토건(주) 건설근로자가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이와함께, 차주열 국토디자인(주) 대표이사 외 7명이 대통령표창을, 손한집 대림산업(주) 상무 외 9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고, 정병찬 대유산업(주) 대표이사·박달하(주)하우시스 대표이사·김성언 (주)정풍개발 대표이사·장성환 (주)대원개발 대표이사·이석순 (주)대공 대표이사·이윤형 대웅산업건설(주) 대표이사, 유철 (유)동원공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오정훈 (주)성아테크 과장·전덕배 (주)금화피에스시 기계공·김재철 한국플랜트서비스(주) 사원 등 총 144명이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장기간의 민간건설경기 침체와 일본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해 건설인들이 국가 번영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책임의식으로 더욱 발전된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삼규 회장 기념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건설수요 창출, 건설산업 발전에 매진하자”**

최삼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이제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개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영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삼규 회장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을 선도할 타 산업분야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과 함께 정부도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건설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6%, 고용의 7%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므로 우리 모두 국민 생활과 산업 터전을 건설하여 국가 번영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설산업 발전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치사 “건설산업 선진화와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위기 극복에 힘써야”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건설산업을 선진화해 나가면서, R&D 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기술 혁신, 건설엔지니어링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힘쓰는 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 700억불을 넘는 등 세계 건설 10대 강국에 진입하였지만, 외국 선진기업과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중국, 터키 등 건설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등 건설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부실 PF 정상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건설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비건설업계 '2011 건설의날' 훈·표창 수상자 명단

훈격	성명	직위	소속	지역
동탑산업훈장	강부인	대표이사	(주)세방테크	서울
산업포장	장순경		영광기업(주)	충북
	윤광수		(주)해광공영	경북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정병찬		대유산업(주)	서울
	박달하		(주)하우시스	서울
	김성언		(주)정풍개발	서울
	장성환		(주)대원개발	광주·전남
	이석순		(주)대공	울산·경남
	이윤형		대용산업건설(주)	경기
	유철		(유)동원공사	전북
	전덕배	기계공	(주)금화피에스시	서울
	오정훈	과장	(주)성아테크	서울
	김재철	사원	한국플랜트서비스(주)	경기

동탑산업훈장

강부인

(주)세방테크 대표이사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및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



강부인 대표는 1972년부터 38년간 설비건설업을 영위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1980년대 초창기에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설비공사에 참여했고, 1985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국가 수출 주력 산업인 삼성반도체 설비공사에 참여했으며, 1999년에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설비건설업계의 중추적인 위치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주)세방테크는 'Air Barrier System 공법', 'Pre Fabrication Equipment System 공법', '이중배관시스템' 등 신기술 적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탈착식 AL-FORM 전용 벽체스리브 공법'을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공사 등 40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공사 시공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8년 제4회 삼성건설 표준화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2009년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로부터 500억 실적탑을, 2010년 삼성물산과 신세

계건설로부터 각각 특별상과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2005년부터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996년 한국능률인증협회 인증원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취득, 2002년에는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품질경영인증을 받았다.

한편 현장에서 신규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건강진단서, 안전장구류 지급확인서 등을 패키지화해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는 한편 안전사이버머니제도를 실시 및 안전릴레이운동 등을 전개한 결과, 2008~2009년 2년간 17,280 시간 무재해를 달성하는 등 건설업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강부인 대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임원을 역임하면서 2004년에는 저가 하도급 심사의무제도를 법제화하여 저가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2006년에는 PQ신인도 심사시 건설재해율 반영 제도개선 추진 등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및 다수의 건설사로부터 품질·안전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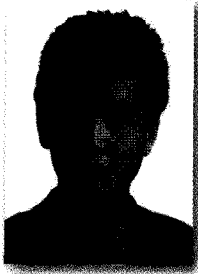
아울러, 건설 관련학과를 개설한 각 대학에 장학금 기탁,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참여활동 등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포장

장순경

영광기업(주) 대표이사

전문건설업체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장순경 대표는 1985년부터 26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며 충북지방경찰청, 경상대학교해양생물연구센터 등 국내 유수의 건설공사에 '지열·태양열에 의한 난방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헌신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건설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하도급 거래 공정화, 부당한 하도급 계약방지,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등 전문건설업체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설비건설협회 공로패 및 제14회 대한민국 가스안전 대상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장순경 대표는 "이중슬리브 설치공법"을 적용해 공사 품질향상 및 공사비 절감을 실현했고, 2008년에는 "접이식 무대장치"와 "정수장 침사조의 이물질 수거장치", "자동차용 회전차단기" 특허의 전용 실시권자로 등록했으며, 꽃동네 태양열 난방공사에서 "반밀폐형 개폐 시스템" 공법을 적용해 야간 및 동절기에 난방장치 운전정지로 인한 동파를 예방토록 했다.

한편 2004년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논문 "비정규 근로자의 법적지위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에도 이바지 했으며, 2010년에는 충북 관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및 녹방지 등을 위해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내식성 자재 사용 건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위생 환경을 개선했다.

윤광수

(주)해광공영 대표이사

산학협력 체결로 지역 건설기술 발전 도모



윤광수 대표는 1990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며 POSCO내 STS 설비증강공사, 안동 실내체육관, 경북 농산물물류센터, 동작구 종합체육관 시공 등 각종 플랜트공사와 일반시설물 공사에 이르기까지 2만여 세대의 기계설비공사 수행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을 역임하면서 한동직업전문학교와 산·학협동협약 체결로 교육현장과 건설현장 간에 기술인력, 시설, 장비 교류 등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에 부실공사방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2개 시공현장을 점검·계도함으로써 지역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윤광수 대표는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장관(現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해광공영은 'PPR 시공자재의 이중 배관공법', 'Econozzle 환기시스템 공법' 등 신공법을 각 공사 현장에 도입해 주거환경 개선과 원가절감에 기여했으며, 태양, 풍력,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공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했다.

한편 윤광수 대표는 포항상공회의소 부회장, 포항향토청년회 지도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특히 포항성모자애원의 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성금기탁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표창

정병찬

대유산업(주) 대표이사

슬러지 건조장치 등 신기술 개발로 환경오염 방지 앞장



정병찬 대표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슬러지 건조장치 및 건조슬러지의 소각처리장치를 개발해 환경오염을 방지했고 다량의 가스 및 전기에너지를 산

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유산업(주)은 건축물의 시공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과 2010년 코오롱건설(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되었다. 또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로 최근 6년간 무재해 기록을 달성,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삼부토건(주)으로부터 무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표창패를 받았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으로써 2007년 서울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정병찬 대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윤리위원을 역임하며 설비공사업계의 부실시공 추방을 위해 자율적인 설비공사 현장점검과 지도·계몽 활동을 펼쳐 부실시공 방지, 품질향상, 안전관리 등을 도모했다.

박달하

(주)하우시스 대표이사

해외건설시장에 진출, 한국의 건설기술 위상 높여



박달하 (주)하우시스 대표이사는 31년간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광고 신도시 에듀타운 주택사업, 지하철 상왕십리역 냉방설비공사, 부산문화콘텐츠클럽플렉스 건립공사, 청

주지웰시티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공시설, 유통시설, 주거 및 업무시설 등의 주요 기계설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2009년에는 카타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라스라판 복합화력발전소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했고 리비아 알카리지 발전소 및 아랍에미리트 합산-5 가스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를 수행중이며, 다변화된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해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철저한 시공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주)와 다수의 건설사(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았다.

김성언
(주)정풍개발 대표이사

**무재해·고품질 시공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김성언 대표는 울진, 신고리, 신월성 등 다수의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심적인 공사를 준공 및 진행하고 있으며 판교열병합, 여수 집단열병합, 인천복합, 부곡복합, 여수화력, 보령화

력, 당진화력 등 다수의 발전분야와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각종 산업설비(정유, 화학공장) 등에 참여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주)정풍개발은 현장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상의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유지했고,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소음·진동 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친환경적인 건설현장을 유지토록 노력했다.

한편 김성언 대표는 많은 플랜트 건설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 공법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건설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 신공법 및 공정개발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산업설비 준공에 기여했다.

장성환
(주)대원개발 대표이사

**축적된 시공기술 기반으로 설비건설
경쟁력 확보**



장성환 대표는 1994년 회사 설립 이래, 아파트 기계설비건설분야 전문건설업체로서 국가 주거환경 및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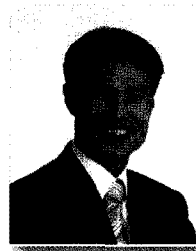
왔다. 또한 축적된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배관 시스템 등에 신공법 및 신자재를 적용, 원가절감과 균일한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현재까지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지속적인 공사물량을 수주하고 있으며, 2010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인증을 받았다.

(주)대원개발은 '이중배관공법', '난방시공시 알루미늄 매트시공법', '그루빙조인트 공법', '층상 이중배관 공법' 등을 현장에 적용해 품질향상 및 하자예방을 구현했으며 입상관, 화장실 매립배관, 수전류, 세대 바닥 배관, 난방배관, 스프링클러배관 등을 현장공정에 맞도록 유닛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도록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공기단축·원가절감 및 균일한 품질 확보를 실현했다.

이석순
(주)대공 대표이사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를 통한
설비업계 모범**



이석순 대표는 2001년부터 3년간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시공품질점검위원을 역임하면서 울산내 '화암고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외

31개 주요 설비공사 현장점검을 실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플랜트설비공사에 주력하면서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설비 시공의 모범을 보였으며, 무재해를 위한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 결과 고려아연(주)로부터 2차례 우수시공 감사패와 무재해 달성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이석순 대표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 및 직원 복리후생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기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유도하는 등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경영혁신과 함께 공정 개선 및 품질개선과 무재해 달성에 만전을 기했다.

이윤형

대웅산업건설(주) 대표이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윤형 대표는 1992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성실 시공과 안전 제고를 통해 쾌적한 국민주거시설 보급에 힘써왔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 수원시장 표창 등 10여회의 표창 및 감사패를 받았다.

대웅산업건설(주)는 품질경영인증을 취득, 체계적 수행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실천했고, 2007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과 2010년 덕트조립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친환경 분야의 기술 습득 및 개발에 힘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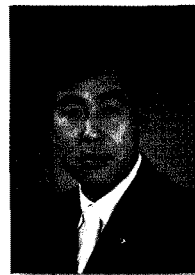
한편 이윤형 대표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중앙로터리클럽, 와이즈멘클럽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단체에서 회장 및 임원을 역임하며 국내·외 봉사활동과 장학기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유철

(유)동원공사 대표이사

품질개선 자문활동 등 설비건설 기술향상에 기여



유철 대표는 전북대학교 공동실험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진료센터,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냉난방, 공기조화, 위생설비는 물론 공장 폐수처리시설 등 플랜트설비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철저한 시공관리로 최고의 품질을 실현했다.

(유)동원공사는 직원 장학금 지급, 장기 근속자 포상, 안전 포상 등 가족 같은 노사관계 정립, 거래처 및 임금체불이 전무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극대화 했으며, 타 업체에 기술 및 품질개선 자문 활동을 펼치는 등 설비건설업계 기술향상에 모범을 보였다.

한편 유철 대표는 전북도회 창립회원으로서 협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불우 독거노인·저소득층 및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등과 교류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유철 대표는 전북도회 창립회원으로서 협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불우 독거노인·저소득층 및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등과 교류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정부 (주)문화지엔코 대표이사 철탐산업훈장, 조종택 금주건설(주)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 수상



▲ 제1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지난 6월 2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지난 6월 2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 박환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과 가스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안전 유공자 포상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가스안전대상은 가스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가스산업

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스안전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언급하며 “2009년, 가스사고 제로화 원년 선언 이후 가스사고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가스사고 31% 감축이라는 성과를 달성, 지난해에도 10% 추가 감축을 이뤄냈고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스사고 50% 감축은 물론 가스사고 제로화라는 궁극의 염원을 실현하는 일에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박환규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후진국형 가스사고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취약분야별 가스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면서 “가스안전관리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동시에 선진 일류국민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명이므로,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자발적 참여로 가스안전을 확고하게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세계 선진 일류국가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정부는 가스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스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술향상, 대국민 홍보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가스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스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안전관리를 실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관 차관은 “자칫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 그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음은 물론 국가산업과 경제 분야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건설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최고상인 동탑산업훈장 1개, 철탑산업훈장 1개, 산업포장 2개와 대통령표창 3개, 국무총리표창 4개 및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35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표창 53개가 수여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는 김정부 (주)문화지엔코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조종택 금주건설(주)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주)동은설비 정의덕 상무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을 받았다.○



▲ 수상자들의 기념촬영(사진 우측 두 번째 : 김정부(주)문화지엔코 대표이사, 좌측 다섯 번째 : 조종택 금주건설(주) 대표이사)

설비건설업계 제18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 수상자 명단

훈격	성명	직위	소속
철탑산업훈장	김정부	(주)문화지엔코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	조종택	금주건설(주)	대표이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표창	정의덕	(주)동은설비	상무